

현대 건축에서 나타난 현상적 공간에 관한 연구**

- 스위스건축가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henomenal Space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architecture of Swiss architects -

Author 이길호 Lee, Kil-Ho / 정회원, 가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이정욱 Lee, Jung-Wook / 명예회장, 가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clarifies an expression characteristic of the phenomenal space. The architecture is an interface between human and nature. Nature presents herself as phenomena. Thus, the phenomenal space should be approached as the essence of architecture that is to accommodate nature. Phenomenon is related to everyday life and shares flow naturally within it. The phenomenon and everyday life form a relationship through the mediating elements that are time, place, and image. If these mediating elements are developed as spatialized elements, time becomes the converse, place becomes the overlap, and shape becomes the revealing. Also, spatial components that are substituted with these elements are void/solid, form, and materials.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phenomenal space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se, and such characteristics are one-ness, continuity, and coincidence of opposites. Phenomenal space is expressed with spatial tones and accepted as spatial atmospheres. For the analysis, 15 works of swiss architects were selected to which spatial elements were applied. And It were composed that analysis by arranging these components as the relational network found that expression characteristics. Trough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phenomenal space of the architecture of Swiss architects were prototypicality, primitiveness, and originality. As a results, It is considered that the role of the space that contains the value of everyday life, the value of the phenomenon is necessary.

Keywords 현상, 일상, 톤, 분위기, 현대 스위스건축
Phenomenon, Everyday life, Tones, Atmospheres, Contemporary Swiss Architectu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간은 고대부터 주거와 종교적인 이유로 건축이라는 일상의 요소를 접해왔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동굴이나 움막 등의 형태로 집을 지었다. 그리고 나약함을 대신할 신앙의 대상을 섬기면서 그 표현을 건축적인 요소로서 표현하였다. 이 모든 건축의 범위는 자연을 넘지 않았다. 역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은 이성의 판단과 탐구를 시작했고 건축의 표현도 이러한 이성이 추구하는 절대미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문명권을 통해서 사교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 사교의 과정은 지배와 피지배의 부

작용도 나왔다. 그들의 이성은 현실과 이상의 대상이 구분되어 그 절대적인 이상에 대한 일방적인 방향성만을 강조하였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은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어 형성된 그들의 언어로 된 건축이 대부분이다. 마치 앞서 설명한 역사가 우리의 것처럼 착각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서양이라는 단편적 지역의 발달과정이다. 지금의 모더니즘은 고유성을 잃어버린 획일화된 얼굴로 우리의 건축을 표현하고 있다.¹⁾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은 자연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로 건축을 일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자연은 각 지역, 인종, 사회마다 다른 고유한 특성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자연의 건축은 현대건축이 추구하는 이성의 대상이 아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ee4good@gmail.com

** 이 논문은 2013년도 가천대학교 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GCU-2012-R260)

1) 후지모리 테루노부, 인문학으로 읽는 건축이야기, 한은미 역, 초판 2쇄, 이순, 서울, 2012, p.169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연속되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생활을 한다. 몸으로 움직이고 보고, 듣고, 만지면서 경험을 한다. 건축은 이러한 몸으로 체험되는 인간과 자연의 점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지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문은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지문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게 하는 변별점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자연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만 모두가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이 사이에 놓인 건축 역시 '다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인간의 일상도 지문과 같아서 지루한 듯 보이지만 모두가 다른 일상으로 생활을 한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생활 그사이에서 건축의 모습은 이것들을 담을 그릇이어야 한다.

현상은 움직임과 변화, 그리고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다. 현상학을 논하기 이전에도 자연에는 수많은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적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은 우리의 주변에 있음으로써 고유한 '멋'을 지닌 그릇으로 그 가치가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적 측면을 공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그 표현특성을 파악하고 연구함으로써 향후 건축이 담아야하는 공간미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습득한 일상의 체험이 건축 공간에 표현되는 과정을 연구하여 공간 본연의 고유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위환경과 공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를 현상이라 파악하고 내, 외부의 현상적인 요소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현상성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선행된 현상학적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차이를 연구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려 한다. 또한 현상성의 특질 파악하는 기준으로써 일상성의 해석을 마련하여 이것을 구분하고 건축공간의 요소를 추출하려 한다. 그리고 현상성은 자연의 순리가 전제 된다.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관한 접근은 필연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 장소 그리고 이를 통해 재생되는 표현매개체에 대해서 연구하여 분석틀의 어휘를 도출하려 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론과 현상적 공간에 관한 요소를 통해 공간화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앞서 살핀 요소에서 공간화 요소를 도출하고 요소간에 관계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 결과로 도출된 요소를 관계망(멀티-네트워크)로 구성하여 공간과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분석틀로서 사용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앞서 제안된 분석기준을 스위스건축가의 작품에 적용하여 현상적 공간을 표현하는데 따른 그 표

현특성을 밝히려 한다.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특색이 있는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인간의 일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건축을 표현한데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자연과 관계를 이루는 현상적 공간성을 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다름(차이)'을 통해 스위스건축가의 작품이 어떠한 표현특성을 나타나는지 분석할 것이다. 현대라는 시간의 범위는 1900년대를 기점으로 그 시점의 이후의 건축 교육을 받았던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하려 한다. 그리고 스위스 건축가 중에 프리츠키(Priztker)상을 수상한 경력의 작가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도 앞선 내용에 충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의 선정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작품선정 기준은 2010년, 2011년, 2013년 유럽의 건축답사를 통해 경험하였던 건축 작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기에 선정 기준을 밝히는 바이다.

2. 현상적 공간의 이해

2.1.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현상의 의미와 수용

원래 '현상(Phenomenon)'이란 개념은 그리스어에 '어떤 것이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건축 공간에서 다루어질 '현상'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변화되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체험의 대상이 된다. 현상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의식은 '지각'을 통하여 주어진다. 특별한 경우에는 시각적 지각 이상으로 공간의 울림과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재료로부터의 냄새, 촉각적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한다.²⁾ 인식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은 지점에서 사물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경험은 '감각'이라 볼 수 있다. 지각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인식의 '받아들임'이라면, 감각은 인식이 '받아들임' 이전의 '몸'과 사물이 나누는 경험의 상(象)이다. 그리고 '경험'은 기억, 상상, 무의식 등에 의존하고 있다. 감각은 주체로 향한 면이 있고, 대상으로 향한 면도 있다. 감각은 현상학자들이 말하듯이 세상에 '있음'이다. '감각'에 있어서 그 주체와 동시에 대상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몸'이다. 그리고 인간이 공간을 체험해 나가는 근본적인 성격을 규정지어 주는 것은 '몸'에 근거한다. 르-코르뷔지에

2) 김광배, 현상학이 건축이론에 미친 영향과 현상학적 건축설계 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230호, 2007, p.20

(Le-Corbusier)가 기준으로 했던 신체-모듈러는 신체를 이용하는 ‘보이는 몸’ 또는 ‘물리적 몸’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현상학에서는 ‘몸’을 물리적으로 분석해내기 보다는, 의식이 수동적인 차원의 자극으로부터 하나의 능동성으로서 작용하는 주체의 ‘감각’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현상은 인간이 ‘몸’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적인 모든 차원을 다루며 실재하는 자연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몸’과 자연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건축공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2) 현상의 개념 정립

현상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문은 20세기의 현상학이다.³⁾ 후설의 철학은 인식론으로서 이해된 현상학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과학적 학문이라고 한데 반해⁴⁾, 하이데거의 개념은 개별 존재자들을 통해 존재를 파악하고자 했던 기존의 형이상학과는 달리,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현상학적 존재론에 대한 그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사르트르의 지향성의 모델은 ‘지각’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현상이고, ‘현상’의 발생은 단지 사물의 ‘지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통 경험하듯이 ‘현상’이고, 그것들의 존재, 그 자체 아래에 놓여있는 것이라 설명한다.⁵⁾ 폰티는 1945년에 발표된 그의 저서 ‘인지의 현상학’에서 인간 체험에서 신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상학은 다양한 양상을 띠며 발전해나가기 시작한다. 폰티는 관념적인 심리학보다는 ‘감각’과 반응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폰티는 ‘신체 이미지’에 집중하였고, 우리 자신의 신체 경험과 행동에 있어서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체 이미지는 정신적 영역도, 기계적인 물리적 범주도 아니기 때문이며, 오히려 ‘몸’ 그것 자체로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과 관계된 행위 안에서의 우리 자신인 것이라고 주장한다.⁶⁾ 하지만 여기서 현상학의 이해 범위를 살펴야 한다. 존재자체에 대한 탐구와 ‘몸’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에 있어 논리는 분명하나 그것은 어디까지 단순한 존재자체, ‘몸’자체에 대한 고정된 분석의 한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중심적인 인

식론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나 실상의 세계는 고정된 현상의 세계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세계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 관계에 따른 존재가 있을 뿐이다.⁷⁾ 이러한 현상의 사유는 불교의 연기(緣起)에서 볼 수 있다. 연기의 개념은 만물(萬物)은 수많은 조건과 조건사이의 관계에서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동양적 관계론이다. 하이데거가 설명하는 에어아이그니스(Ereignis)⁸⁾에서도 존재에 대한 현상을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존재의 발생은 무(無)를 통해서 ‘나’ 자체의 자아를 비움으로써 존재의 드러남을 목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본 논문에서 현상의 개념은 고정된 현상을 설명하는 현상학적 개념보다는 관계적 측면에서 현상의 수용적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활용될 것이다. 하이데거의 인식이전의 ‘있음’에 대한 존재자체와 폰티가 지향하는 감각의 현상적 수용에 대한 ‘몸’의 감각 이론을 동양적 관계 변화의 연기론을 통해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사유에 다시 접근하고자 한다.

<표 1> 현상의 이해와 비판

	현상의 이해	현상의 인식	비판적 수용
에드문트-후설	인식적 지각	내면(지각)	자아주체의 고정적 현상과 내면의 인식과 지각의 강조를 비판하고 연기적 관계를 수용
마르틴-하이데거	존재적 이해	외면(자체)	
장폴-사르트르	관념적 지각	내면(지각)	
모리스-메를리폰티	신체적 감각	외면(감각)	

(3) 현상을 이해하는 존재론과 관계론의 입장

서양사상의 구성원리가 하나의 개별적 존재의 속성을 탐구하는 ‘존재론’을 요약된다면, 동양사상의 구성원리는 각 개체와 개체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탐구하는 ‘관계론’으로 요약된다.⁹⁾ 존재론에서는 개별적 존재를 독립된 세계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는 반면, 관계론에서는 모든 존재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망 안에서 해석한다. 현상 역시 이런 관계망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현상 자체도 하나의 대상으로 그 자체로만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선 서양의 현상학이 하나의 성분이나 특질만을 놓고 분석에 대한 무게를 두었다면, 동양의 현상을 다루는 사상은 이보다 더 통합된 관계론을 펼치는 걸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상의 자체보다는 현상의 관계에 집중하며 현상적 공간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3) 20세기 초반에 에드문트-후설(Edmund-Husserl), 마르틴-하이데거(Martin-Heidegger), 모리스-메를리폰티(Maurice-Merleau Ponty), 장폴-사르트르(Jean-Paul Sartre) 등에 의하여 제창되었다.

4) 후설의 현상학은 순수의식으로 돌아가게 하는 보편적 반성이론이다. 그는 현상을 넘어선 일반적인 지각의 상태를 지칭하는 ‘선협적 관념론’이라는 말을 차용한다. 김광배, Op. Cit., p.21

5) 사르트르의 현상학은 사물 자체는 지각의 활성화의 연속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명료하게 자유의지를 포함한다. 사르트르의 방법은 사실상 적당한 상황 안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경험을 해석적으로 기술함에 있어서 문학적 양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방법은 뛰어난 문학적 역량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Ibid., p.22

6) Ibid., p.22

7) 야나기 무네요시, 미의 법문, 초판 1쇄, 최재목·기정희 옮김, 이학사, 서울, 2005, p.22

8) 존재사건은 존재의 고유화, 존재의 자기화를 일컫는 말이다. 존재는 역사시기별로 달리 주어지며, 그 주어점은 사건적으로 일어난다. 존재에 대한 망각이 깊어짐에 따라, 존재의 진상도 인간으로부터 멀어진다. 존재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만물사이에서 서로에게 전향해야할 관련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이 실현되는 것이 존재사건이다.

9) 김명진. EBS<동과서>제작팀, 동과 서, 초판 2쇄, 지식채널, 서울, 2011, p.37

2.2. 현상적 공간의 이해

(1) 건축공간에서 현상의 전개

건축공간에서의 현상성¹⁰⁾은 건물의 물리적 비례나 성질 또는 양식 등의 분석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지각적 체험 안에서 공간적 감성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다. 현상성은 자연의 변화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몸’의 감각에 관한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건축공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연 법칙 안에 구체적인 형상(形象)을 갖는다. 이러한 형상은 시간과 공간적 의미가 각각의 관계변화에 따라 다르게 수용된다. 따라서 형상은 현상의 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상의 발생은 언제나 자연의 인연(因緣)과 같이 한다. 인간은 이러한 변화를 반복적인 시간을 통해서 익숙한 장소와 공간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현상은 이러한 인연의 과정에서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현상은 일상을 통해 존재를 드러낸다. 따라서 현상의 공간적 적용은 일상의 해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일상은 ‘무의식, 반복, 익숙함’이라는 세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다.¹¹⁾ 이러한 특질은 현상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요소로써, ‘무의식’은 자연변화를 순환적임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자연안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이고 ‘반복’은 일상의 흐름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 같은 대상과 관계하면서 생활의 나이테 같은 변별점을 제공한다. ‘익숙함’은 반복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성적 측면으로 ‘몸’을 통해서 감각되는 경험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진 일상 공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재현한다. 일상 공간에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의 과정에서 생산된 의미가 퇴적되어 있다. 일상 공간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다. 작고 사소한 것을 구성된 일상 공간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만든 의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 낯익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일상 공간은 꾸미지 않은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진실한 곳이다.¹²⁾ 그렇기 때문에 현상성은 일상적 공간에서 나의 고유성을 재현하는 성질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상성과 일상의 공통된 특질을 통해 공간적 매개요소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 2> 현상을 수용하는 지점

작용	수용점	
	자아 타의 접점	수용이후 지점
현상 (사물, 존재, 대상)	감각	자아
	몸	지각
		인식

(2) 현상성과 일상의 공간적 매개요소

1. 시(時)-일상의 시간은 반복된 흐름의 일종이다. 계

10) 현상성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이다.

11) 이길호, 현대 실내디자인의 일상미학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사논문, 2007, p.15

12) 박승규, 일상의 지리학-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묻다, 초판 3쇄, 책세상, 서울, 2011, p.27

절, 아침, 점심, 저녁 등 자연이 만든 흐름이 인간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설명한다. 또한 시간은 움직임을 말할 수 있다. 시간과 움직임은 불가분의 관계로 계절에 따른 변화, 움직임 역시 일상의 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측면은 무의식적으로 접해진다. 시간에 따른 현상적인 측면은 장소와 더불어 공간적 고유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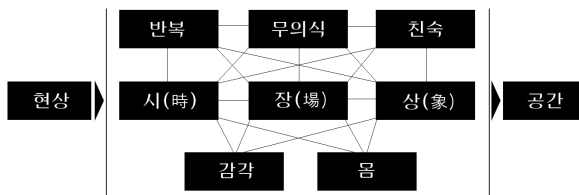
2. 장(場)-장(場)의 의미는 반복적인 시간과 더불어 고유성을 설명하는 요소이다. 장소는 의미의 생성과 같이 한다. 이러한 의미는 그 장소에서 보이는 다양한 현상에서 공간적으로 적용할 현상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건축이 속한 역사, 문화, 풍토, 기후, 지역성, 도시성 등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과 관계있다. 구체적 공간으로 경험되는 장소는 무엇보다도 ‘몸’으로 경험된다. 장소를 구체화 하는 건축은 ‘몸’의 기억 속에 공간의 경험이 지속되는 건축을 말한다. 정서에 바탕을 둔 공간은 심오한 정신적 차원과 연계된 것으로 평범한 일상에서 고유한 의미를 파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공간은 시간과 일상의 변화에 따라 신체가 공간적 특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추상적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우리의 사고는 장소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지리적 실재란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존재하는 장소이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소나 경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위치나 지역, 지형 같은 형식적 개념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다.¹³⁾ 따라서 지리적 공간은, 단일하거나 동질적이지 않고 제각기 이름이 있으며, 근본적이거나, 편안하거나 혹은 위협적일 수도 있는 어떤 것으로 직접 경험되는 곳으로써 현상의 공간적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다.

3. 형상(形象)-형상은 일상의 시간과 장소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물과 대상에 관한 요소이다. 형상은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와 연상으로 형성되는 시적 이미지¹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건축공간에서의 현상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현상이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을 통해 유추된 이미지를 추출해 내고 체험적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을 점유하는 관찰자는 공간에서 존재하는 자연과 인공, 채움과 비움, 빛과 그늘 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재료와 형태 등의 조화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 등을 떠올린다. 형상은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더욱더 구

13) Edward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초판 1쇄, 논형, 서울, 2005, pp.31-34

14) 시적이미지는 가스통 바슐라르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정신 작용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과 완전한 신체의 선형적 경험 안에서 사람과 건축 사이의 정신적 융합이라는 찰스 무어의 주장이 있다. 따라서 시적이미지는 어떠한 인과관계의 설명보다는 주관적 사유와 열린 결말의 근원적 작용임을 알 수 있다.

체화 되고 이미지의 형상은 또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형상적 사과의 과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의 이미지와 함께 작용하며 이는 감각적인 요소이다. 또한 형상은 감각과도 연관된다. 이미지의 연상이 오감을 통해서 이어지고 기억과 경험에서 각인된다. 주거에 대한 개인적이고 회상적인 경험과 우리가 몸 안에 담아왔던 장소와 공간에 있어서의 존재감의 축적을 건축공간의 바탕과 시작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현상적 공간의 관계는<그림 1>과 같은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관계 다이어그램

3. 현상성의 공간화 요소와 그 수용에 따른 관계어휘 연구

3.1. 현상적 공간의 구성요소와 공간화 요소

현상적 공간의 전개는 현상성의 연기적 수용으로 어휘를 수렴하고, 연기의 핵심인 관계 변화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1) 현상적 공간의 구성요소-비움, 채움(Void & Solid-空), 형(Form-形), 재료(Material-色)

현상성과 일상을 기준으로 공간적 매개요소를 도출할 때 기준은 시간, 장소 그리고 형상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매개요소는 구체적 요소로 한정할 수 있는데, 현상을 담는 공(空)의 요소와 그 공을 나타내는 형(形)의 요소, 그 형을 마감하는 재료의 요소이다. 현상적 공간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단일한 개념의 전개보다는 부분에서 전체를 다루는 큰 의미의 구성을 총체적으로 다뤄야 한다. 따라서 공간의 가장 기본인 비우는 공간과 채우는 덩어리의 기준이 첫 번째이고, 이것들의 형에 대한 파악이 두 번째이다. 마지막으로 앞선 공간의 재료를 통해서 공간의 성격을 마감할 수 있다. '몸'으로 감각하는 직접적 대상이 이러한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 시(時)의 공간화 요소-역(易):변화

시(時)의 공간화 표현요소는 변화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시간에 의해서 파생되는 현상적 측면은 자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변화의 요소는 공간자체의 밀도변화뿐만이 아니라 사물이 지니는 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간이 변하면서 빛의 움직임과 세기 역시 변하고 이러한 변화의 빛은 보이드(Void)공간에 움

직임을 부여하며 현상적 공간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사물의 오래됨은 낮고, 낮고, 녹이 드는 등 다양한 변화로 공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외부의 시간적 인자를 내부에 반영함으로써 현상적 공간의 통합을 이루는 역(易)의 구성은 현상성의 공간화 구성요소의 첫 번째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3) 장(場)의 공간화 요소-첩(疊):중첩

가장 중요한 건축적 체험은 그 장소에 있어서의 존재감이다. 노르베르크-슈르츠에 의하면 건축의 현상학적 잠재력은 특정한 장소의 창조를 통하여 환경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내는 가능성으로서 정의한다.¹⁵⁾ 조선 시대의 대표적 정원으로서 일컬어지는 소쇄원에서 대지와 건축 사이의 합일(合一)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소쇄원은 산기슭에 계곡을 중심으로 자연미를 살려 조성한 것으로, 동산이나 숲의 자연적인 상태를 조경의 기반으로 삼아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정자와 같은 건축물을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장소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그에 따라 유추된 이미지의 공간화 과정 뒤에는 이것을 전달하고자하는 형상에 대한 주체적이고 체험적인 설정을 위해 공간적 매개물이 필요하게 된다. 재료, 빛, 형태의 본질적인 속성과 함께 근경, 중경, 원경의 건축적 총합이 완전한 지각의 기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는 장소의 배경으로 레이어(Layer)를 이루며 '첩(疊)'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이 개념의 근원은 본질과 실체의 합일(合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첩(疊)의 구성은 자연환경과 의미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자연합일(自然合一)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4) 형상(形象)의 공간화 요소-관(觀):연상

건축공간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미학적 의도를 확인하려 할 때, 작가의 생각들이 장소, 재료, 에너지, 재현, 회상, 기억, 이미지, 밀도, 분위기 등과 같은 문제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러한 추상적인 말들이 실질적 작업에 적절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작가가 디자인 하고 있는 것이 장소 또는 주변 환경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장소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체험적 문제를 중시하며 재료 또는 빛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관찰하며 내면의 이미지를 연상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관(觀)은 '드러남'을 위한 존재¹⁷⁾와 현상의 감각을 떠오르게 하는 어휘이다. 이러한 과정은 감성적인 측면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현상성의 공간화 구성에서 관(觀)의 구성은 구체적인 사실과 과거의 경험을

15) 김광배, Op. Cit., p.23

16) Peter Zumthor, Atmospheres, First edition, birkhäuser, basel, 2006 내용 참고.

17) 야나기 무네요시, Op. Cit., p.171을 해석하여 정의함.

통해서 감각하는 기억과도 관련하여 공간의 이미지와 감성적인 측면을 다루는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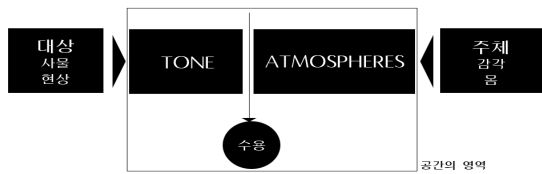
3.2. 현상적 공간의 표현과 수용

(1) 현상적 공간의 표현 : 톤(Tones)

현상적 공간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보이드/솔리드, 형, 재료 등을 통한 구성과 매개요소의 공간화 요소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렇듯 현상적 공간의 표현은 단순한 하나의 요소를 통하기보다는 전체의 느낌으로 인간에게 전달하고 있다. 공간적 톤은 공, 형, 색의 표현요소로써 재료, 빛, 색, 질감, 깊이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톤의 표현은 공간 자체의 표현수단으로 인식되어지며 현상성의 공간화 요소를 접하는 어휘이다.¹⁸⁾ 인간이 공간을 감각하고 지각을 하는 방법은 분석적이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수용한다.

(2) 공간적 톤의 수용 : 분위기(Atmospheres)

공간과 장소에는 특별함에 더 나아가 의미와 감정적 체험이 있다. 이것은 공간의 부분만을 느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장소, 형상 등 공간을 구성하는 수평, 수직의 구성요소 등의 전반에 걸쳐 전해지는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현상적 공간은 전체적인 분위기(Atmospheres)로 수용되며 이해한다. 그 장소와 현상적 공간은 대지와 건축의 구축적 성격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공, 형, 색 등의 접점에 있어서, 감각적인 특성의 관심을 새로이 불러일으키는 다각각적이며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는 감각, 경험, 기억 등 인간이 건축공간을 체험¹⁹⁾하는 요소를 통해 특별함을 갖는 어휘이며 톤의 표현을 상대하는 수용적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림 2> 현상적 공간의 표현과 수용의 관계

<표 3> 공간 구성과 공간화 요소의 표현과 수용

공간의 구성	공간화 요소 어휘	내용
공간의 구성	공(空)-Void/Solid	공간을 실체적으로 나타내는 요소, 공간적 톤으로 그 공간을 표현.
	형(形)-Form	
	재료(色)-Material	
공간화 요소	시(時)-변화(易)	일반적 공간을 현상적 공간으로 전개하는 요소, 공간적 분위기 어휘로 나타남.
	장(場)-중첩(疊)	
	형상(形象)-연상(觀)	

18) 이길호, 현대 포르투갈 건축의 공간적 톤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95호, 2012, p.106

19) S.E. Rasmussen, Experiencing Architecture, 건축예술의 체득, 선현종 역, 2권 2쇄, 아정문화사, 서울, 2010, pp.11-35

3.3. 현상적 공간의 관계적 특성

(1) 일체(一體)성-부분과 전체의 합성

기존 현상학의 사물은 형태로서 구분되고, 고유의 형태를 지닌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하면서 개체성을 중요시한 반면,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현상적 개념에는 외형의 형태보다는 그것을 이루는 구성과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질성과 연결성의 관계해석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현상학을 지향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적 공간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요소보다는 그 전체적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톤과 분위기로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개체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 연결성에 주목하며 조건과 조건사이 연관성을 고려한 일체(一體)적 특성이 나타난다.

(2) 연속(連續)성-관계요소의 인과관계

현상적 공간은 대자연과 일상의 사이에서 관계적 연속성에 의해서 그 존재의 가치가 변한다. 이러한 연속성은 대자연의 현상에 따라 일상이 변하고, 일상이 변함에 따라 공간이 변하는 순환적인 관계에 놓인다. 현상적 공간에서 연속성은 외부와 내부의 관계적 연속성,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사물과 관찰자의 감성적 연속성 등 상호관계에 의한 연결이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순환적 연결고리로서 공간의 특성을 타낼 수 있다.

(3) 대대(對待)성-사물(事物)의 상호연결

사물(事物)의 존재가치는 그 가치의 경중(輕重)에 있지 않다. 관계망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조건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이 근거가 없이는 어떠한 대상이나 공간도 독립해서 형성될 수 없다. 현상적 공간은 연기론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표현은 주역(周易)에서 볼 수 있다. 주역에서 설명하는 대대성이란, 이 세상 모든 사물이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이다. 지역의 재료에 따라, 그리고 환경적 형태에 따라 구성되는 각각의 요소나 사물은 관계표현에 의해서 그 존재이유를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 특성으로 대대성을 현상적 공간의 관계적 특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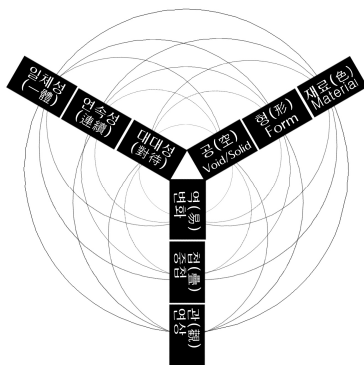
<표 4> 현상성의 공간화 전개 이미지

	시(時)-역(易)	장(場)-첩(疊)	형상(形象)-관(觀)
공(空) void/Solid	빛의 움직임 공간의 깊이	지형의 경관, 기후를 유입	문화, 사회의 연상
형(形) Form	자연변화에 따른 마모, 소멸	지형의 형태 지형의 유형	자연성의 연상
재료(色) Material	색의 바램 자연변화의 흔적	지역재료	지역성의 연상

4. 현대 스위스건축에서 나타난 현상적 공간의 표현특성

4.1. 분석방법 및 선정조건

(1) 분석방법-관계망



<그림 3> 분석구조

앞서 살폈던 요소들을 <그림 3>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관계망으로 형성하고 <표 4>의 전개 이미지를 바탕으로 <표 5>의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이 분석틀은 사례 공간을 공, 형, 재료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현상적 공간의

표현어휘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하기에 앞서 스위스건축가의 일상적 환경이해를 위한 개요를 통해서 현상적 접근에 대한 이들의 공통된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분석 요소는 현상적 공간을 설명한 어휘를 기준으로 도면과 사진, 그리고 답사한 현장의 환경을 관찰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것이다.

<표 5> 현상적 공간의 표현요소 분석틀

	시간성:역(易)	장소성:접(叢)	형상:관(觀)
공(空) Void/Solid	매시브	개구부(방향)	연상
형(形) Form	흔적	지형(단순)	구축
재료(色) Material	자연재료	지역재료	질감

(2) 사례선정조건

스위스는 자연환경이 특징적인 몇 개국 중에 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사람들의 일상에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스위스 건축가를 통해 나타난 건축공간은 현상적 공간 분석에 타당한 근거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자연환경과 현상이 일상에서 건축공간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본 논문의 연구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대 스위스 건축은 최근 피터-쭘터(Peter-Zumthor), 헤르조그 앤 드뮈롱(Herzog & De Meuron) 등 프리츠크(Pritzker)상 수상을 통해서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두 작가를 통해 스위스 건축을 분석하는 것도 마땅할 것이다. 또한 그 지역을 토대로 활동을 하는 건축가 발레리오-올지아티(Valerio-Olgiate)를 더불어 연구함으로써 현대 스위스건축가의 작품에서 나타난 표현특성 연구의 범위를 대, 내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간적 현상성의 분석은 현장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2010년 중부유럽, 2011년 미국, 2013년 서부유럽의 건축답사를 통해 직접 경험한 공간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표 6>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6> 사례선정

	작품	작가	위치	지역	기능	발표
1	Atelier zumthor	Peter-Zumthor	스위스/할덴스타인	Village	업무시설	1986
2	Shelters for roman	Peter-Zumthor	스위스/쿠어	Village	전시시설	1986
3	Benedict church	Peter-Zumthor	스위스/숨비트크	Rural	종교시설	1988
4	Theme vals	Peter-Zumthor	스위스/발스	Rural	상업시설	1996
5	Bregenz museum	Peter-Zumthor	오스트리아/브레겐즈	Urban	전시시설	1997
6	Bruder klaus chapel	Peter-Zumthor	독일/맥헤르니호	Rural	종교시설	2007
7	Kolumba museum	Peter-Zumthor	독일/켈른	Urban	전시시설	2008
8	The yellow house	Valerio-Olgiate	스위스/플림	Village	전시, 업무시설	1999
9	Bardill studio	Valerio-Olgiate	스위스/사란스	Village	업무시설	2007
10	Office of valerio olgiate	Valerio-Olgiate	스위스/플림	Village	업무시설	2007
11	Dominus winery	Herzog & Demeuron	미국/나파밸리	Rural	업무시설	1998
12	Prada aoyama	Herzog & Demeuron	일본/도쿄	Urban	상업시설	2003
13	De young museum	Herzog & Demeuron	미국/샌프란시스코	Rural	전시시설	2005
14	Caixa forum madrid	Herzog & Demeuron	스페인/마드리드	Urban	전시시설	2008
15	Vitra haus	Herzog & Demeuron	독일/빌헬라임	Village	전시, 업무시설	2009

4.2. 분석

(1) 스위스 일상적 환경의 개요

스위스는 지리학적으로 유럽의 남, 중부 지역으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와 접해있다. 그리고 산악지형이 70%를 차지한다. 따라서 자연의 균형감을 인식하고 있다. 알프스산맥은 높은 바위산, 눈 덮인 정상, 깊은 골짜기, 거대한 빙하 등으로 이루어져 자연관에 대한 인식이 섬세하다. 스위스는 유럽국가중에 종교개혁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나라이다. 츠빙글리를 효시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칼뱅의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 청교도 의식이 스위스인의 의식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인 내면에 이러한 금욕적인 의식 성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변방의 국가적 위치 때문에 인간내면의 존엄 등 실존적 가치에 대한 탐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예술적 배경도 일상을 통해 나타난다.²⁰⁾

(2) 분석

스위스건축가 작품에서 나타난 현상적 공간의 표현특성 도출을 위해 공간의 구성요소와 매개요소를 통해 도출된 전개 이미지<표 4>와 현상적 공간의 관계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출한 분석틀의 표현어휘 <표 5>의 내용으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20) 이성만, 스위스문화이야기, 초판, 역락, 서울, 2004, pp.51-58

<표 7> 사례분석표

	사례작품	적용	표현
1	Atelier zumthor 	단순한 솔리드, 빛의 스미, 나무 쪽 마감 등, 경관을 중요시 함. 지형과 조화로움에 지역나무를 이용하여, 장소의 시간과 기후 변화에 따라 공간이 변화됨. 코테지를 연상하는 구조와 재료의 색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며 지역성을 표현함.	메시브 자연재료 지역재료 질감
2	Shelters for roman 	과거의 유적의 터 위에 역사를 살리기 위한 건축으로 단순한 덩어리에 빛의 유입으로 공간을 강조한다. 터의 흐름은 방해하지 않으며 재료역시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로 구축적으로 구성하였다.	메시브 자연, 지역 단순 질감
3	Benedict church 	산악지형의 종교시설로 외부의 마감은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로 너와를 틀어 기후와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고 내부는 빛의 유입을 절제하여 종교적 심오함을 갖도록 함. 단순한 형태와 마감으로 지형에 무리가 가지않게 단순하게 구성함.	메시브 자연재료 지역재료 흔적
4	Theme vals 	스위스에서 외진지역으로 골짜기가 형성된 지역에 바위가 많은 곳에 매스를 단순하게 지형에 편입시키면서 단순한 빛으로써 공간의 유희함을 강조하고 지역의 재료의 구축으로 자연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메시브 개구부, 방향 자연, 지역 흔적
5	Bregenz museum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의 해변에 위치한 뮤지엄으로 물의 색과 빛의 흐름을 깨지않기 위해 유리모만 매스를 단순하게 구성함. 내부에서는 그 빛을 이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격을 지움으로 빛을 강조하도록 함.	메시브 단순 구축
6	Bruder klaus chapel 	넓은 농경지에 위치한 종교시설로 흙을 모티브로 구축적 구성을 보이며 빛에 대한 숭고함을 단순한 개구부를 통해 이루었으며 내부의 마감은 외부와 달리 재료는 같으나 결을 살려 빛의 유입을 피부로 느끼도록 구성하였다.	메시브 구축 지형 자연재료 질감
7	Kolumba museum 	도시에 위치한 과거역사의 기념을 위한 종교적 성격의 뮤지엄이다. 성당터에 자리잡고 과거의 흔적을 이어 재료의 선택과 빛을 투과하도록 하였다. 단순한 덩어리로 내부 재료와 빛으로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였으며 재료의 이어짐이 나타난다.	메시브 유형 연상 구축
8	The yellow house 	산악지역에 자리한 마을중앙에 위치하며 과거 건물을 리퍼비쉬한 작품이다. 주택으로 계획하였다가 지금은 전시장으로 이용하고 이를 위해 전체적으로 백색으로 처리하였다. 텍스처만 살리고 다른 성격은 백색으로 모두 숨기면서 기능을 함.	메시브 연상 구축
9	Bardill studio 	산악지역에 위치한 작은 음악 스튜디오로 설계한 작품이다. 이 지역은 회색의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나 붉은 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면서 독특함을 표현하였는데 이 표현을 재료감으로 표현하고 내부 빛의 효과를 극대화한 형태로 구성한다.	단순 개구부 지형
10	Office of valerio olgiati 	산악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건축가 스튜디오이다. 단순한 형태와 환경을 자극하지 않는 재료로 구축적으로 마감하였고 질감을 통해서 빛의 느낌을 강조하였다. 매스의 개구부를 통해 흘러온 빛은 공간의 유희함이 표현되었다.	개구부 구축 질감
11	Dominus winery 	미국의 나파밸리에 위치한 와이너리이다. 포도밭 중앙에 위치하여 형태의 거슬림이 없이 낮게 형성되고 지역에 틀로 매스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 돌의 틈을 이용하여 빛을 유입함으로써 빛의 반응에 예민한 공간을 구성하였다.	자연재료 지역재료 메시브 질감
12	Prada aoyama 	도쿄의 변화기에 자리한 프라다 매장은 스위스 건축가의 영향으로 단순한 덩어리와 건축가의 재질과 도시성의 해석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투명함과 질감이 나타나면서 공간의 투명함은 강조되고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강조점의 역할을 한다.	메시브 질감 구축
13	De young museum 	샌프란시스코의 중앙공원 안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도시의 맥락과는 다른 구성을 보인다. 주변의 숲을 해치지 않도록 낮은 매스로 처리하고 단순한 재료로서 마감한다. 특히 마감의 텍스처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매스에 구축적 성격과 자연적 재료의 느낌을 연상토록 한다.	메시브 질감 구축 자연
14	Caixa forum madrid 	스페인 마드리드 도시의 변화기에 위치한 뮤지엄이다. 기존 건물을 리퍼비쉬한 건축으로 기존의 건축의 흐름과 톤을 유지하도록 재료를 선정하고 부족한 공간을 위한 증축부분도 이와 맥을 유지하기 위해 재료를 선정하였다. 시간과 장소의 이어짐을 재료로서 표현하였다.	자연, 지역 재료 메시브 질감
15	Vitra haus 	독일과 스위스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빌헬라임 장소는 비트라 마을이 구성된 곳이다. 비트라는 가구회사이기에 집을 연상하는 매스와 주변경관과 상관축을 두고서 내, 외부의 관계성을 표현한 공간이다. 매스사이사이 열려진 공간은 빛의 유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한 공간이다.	연상 메시브 개구부

Bluder Klaus chapel - Peter Zumthor			
	매시브	개구부 (방향)	연상
	흔적	지형 (단순)	구축
	자연 재료	지역 재료	질감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현상적 공간이 설명하는 공간은 단일한 요소나 표현만을 통해서 느껴지기 보다는 관계적 요소 모두가 총체적으로 느껴지면서 체험되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적 특성은 일체성, 연속성, 대대성 등으로 나타난다. 분석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현상적 공간의 특성은 형태의 어휘보다는 공간적 톤(Tones)과 관련된 어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분석한 스위스건축가의 작품은 매시브, 자연재료, 지역재료, 구축, 질감 등의 표현요소가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대 스위스건축에서 나타난 현상적 공간의 표현특성을 분석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스위스건축가의 작품에서 나타난 현상적 공간의 표현 특성의 첫 번째는 원형성이다. 이들 작품의 건축형태는 인간이 자연 안에서 다루었던 기초적인 형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를 통해서 과거 기억과 경험, 의미들이 단절되지 않고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 형태의 요소보다는 담겨진 자연환경과 기억, 의미들에 집중될 수 있는 형태적 특성인 것이다. 이는 자연환경의 현상적인 요소들이 공간내부에서도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공간적 감성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특성이다.

두 번째 표현특성은 원시성이다. 원시성은 자연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특성이다. 원형성의 특성을 보이는 형태적 측면은 그 디테일과 마감에서 분위기를 얻는다. 그 분위기는 재료 본연의 느낌과 결을 느끼게 되는데, 그 표현이 자연적 재료가 시간과 장소적 측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변화적 측면을 그대로 담고 있다. 단순한 형태에서 자연재료의 마감은 시간의 흐름을 짐작케 하고, 앞으로의 시간도 예상케 한다. 이는 일사적인 공간에서도 변화의 측면 친숙한 측면이 가장 예민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모든 사물은 생성과 동시에 소멸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사물의 변화를 가장 드러내는 표현 특성이 원시성이다.

세 번째 표현특성은 원래성이다. 원래성은 자연환경과 일치를 보여주는 특성이다. 장소적 측면과 관계하는 특성인데, 공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환경과의 합은 그

장소를 오감을 통해 통합함으로써 장소와 공간의 합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특성이다. 내부와 외부의 연속성,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이 마치 하나의 변화로 그 장소에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건축자체의 욕구보다는 환경을 배려하는 특성 중에 하나이다.

위와 같은 결론은 건축공간이 내세워야 할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건축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있는 접점이다. 접점의 역할은 이 둘 사이에 교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연의 흐름과 장소의 가치, 일상의 배려를 담는 그릇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릇이 내세워진 밥상보다는 찬과 밥, 그리고 오가는 분위기가 우선시 되는 역할이 지금의 건축에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은 앞으로의 건축이 가져야할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명진, EBS<동과서>제작팀, 동과 서, 초판 2쇄, 지식채널, 서울, 2011
2. 박승규, 일상의 지리학-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묻다, 초판 3쇄, 책세상, 서울, 2011
3. 야나기 무네요시, 미의 법문, 최재목·기정희 옮김, 초판 1쇄, 이학사, 서울, 2005
4. 이성만, 스위스문화이야기, 초판, 역락, 서울, 2004
5. 후지모리 데루노부, 인문학으로 읽는 건축이야기, 한은미 역, 초판 2쇄, 이순, 서울, 2012
6. Relph, Edward,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초판 1쇄, 논형, 서울, 2005
7. Steen. E. Rasmussen, Experiencing Architecture, 건축예술의 체득, 선현중 외 역, 2판 2쇄, 야정문화사, 서울, 2010
8. Pallasmaa, Juhani, The eyes of skin, 3 edition, wiley, new jersey, 2012
9. Spier, Steven·Tschanz, Martin, Swiss Made, Princeton Architecture Press, new york, 2003
10. Zumthor, Peter, Atmospheres, First edition, birkhäuser, basel, 2006.11, Zumthor, Peter, Peter zumthor works, first edition, birkhäuser, basel, 1999
11. Zumthor, Peter, Thinking Architecture, second edition, birkhäuser, basel, 2006
12. 이길호, 현대 실내디자인의 일상미학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사논문, 2007
13. 김광배, 현상학이 건축이론에 미친 영향과 현상학적 건축설계 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230호, 2007
14. 이길호, 현대 포르투갈 건축의 공간적 톤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95호, 2012
15. Fernando Marquez Cecilia y Ricahrd Levene architecto, Elcroquis no.84, Herzog & DeMeuron, spain, 1997, no.129-130, Herzog & DeMeuron, spain, 2006, no.152-153, Herzog & DeMeuron, spain, 2011, no.156, Valerio Olgiati, spain, 2011

[논문접수 : 2013. 10. 31]

[1차 심사 : 2013. 11. 25]

[2차 심사 : 2013. 12. 04]

[게재확정 : 2013. 12. 13]